

“끼니 거를라”...숨 돌릴 틈 없는 도시락 배달

신종 코로나로 무료급식 중단 이후 광주 5개구 복지관 르포

노인들 ‘창살 없는 감옥 생활’...광주 525명 매일 배달 엘리베이터 없는 영세 아파트 하루종일 오르락내리락 고통·영양 배달 인력 없어 ‘굶은 노인들’ 생겨날 우려

광주·전남지역 무료 급식이 중단된 이후 김상례(83) 할머니는 졸지에 ‘외톨이’가 됐다. 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고, 노인 프로그램과 급식마저 중단되면서 갈 데도 애기할 동료도 할 일도 없어졌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복지관이 문을 열 때만 해도 매일 찾아가 또래 노인들과 공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매일 도시락을 무료로 배달해주고, 안부도 물어줘 그나마 참을 만하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 복지관 직원들은 급식소 문을 닫으면서 오전 시간이 더 바빠졌다.

무료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게 된 노인들에게 제공할 대체 음식을 노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포장해놓아야 하는데, 평소 품이 아파 급식을 먹으려 오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배달해줄 점심 도시락을 더 많이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시락이나 대체 음식을 전달할 인력조차 구하지 못해 ‘굶은 노인들’도 생겨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동·서·남·북구가 23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급식 중단 이후 끼니를 거를 것으로 염려되는 지역 525명의 노인들에게 오는 18일까지 직접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 광산구의 경우 이미 452명의 노인들에게 13일치 분량의 즉석식품을 한꺼번에 배달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직원 5명이 이날 오전 9시 전부터 모시송편, 두유, 굴

등 대체 음식을 종이백에 담느라 분주했다. 점심을 먹기 한 시간 전부터 하나둘씩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전달하려면 빼듯하다는 게 복지관 설명이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의 평균 무료급식 이용자는 대략 200여명이다.

복지관은 오전 중 급식소를 찾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마쳐야 한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이날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 4층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했다.

광주시 북구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들도 10일 오전부터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5명의 직원들은 평소 40명 분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치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날부터 도시락 배달 업무를 맡았다. 25명의 노인들은 직접 받으러 오지만 나머지 노인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전달해야 한다. 이들은 인근 자활업체에서 도시락을 받아와 ‘식지 않게’ 보온 박스에 담은 뒤 배달에 나섰다.

직원들이 챙겨준 도시락을 받은 황옥남(85) 할머니는 “나이가 노인들은 신종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고 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종일 집에만 있는데 도시락을 배달해주면서 안부까지 챙겨주니 고맙고”라고 말했다.

황 할머니는 “빨리 진정돼 평소처럼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친구들과 노래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4개 자치구는 도시락 배달 외에도 무료급식 중단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2461명의 노인들에게 대체식을 지원했다. 반·찰밥·떡 등을 매일 또는 3~4일치 분량씩을 지급한다. 전남에서도 40곳의 무료급식소가 급식 중단 이후 끼니를 거를 노인들 1891명에게 2~3일치 분량의 대체 식품을 나눠줬다.

도시락 배달이나 대체음식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고흥·영암 지역 14개 무료급식소는 노인들 706명에게 대체식을 전달할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자칫 ‘굶은 노인들’이 생겨날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북구 최용철 노인장애복지과장은 “신종 코로나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무료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다.

광주 동구 민원처리 단축한 직원에 인센티브

광주시 동구가 구민들의 민원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 직원들을 표창한다.

동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구민중심 행정을 위해 ‘2020년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2020년 마일리지제’는 2일 이상의 접수·처리 민원종별별 처리 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은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동

구청내 민원담당 공무원과 보건소 내 민원 담당이 대상이며 고충·건의·질의 민원, 취약·거부·반려·불가 민원은 제외한다. 동구는 오는 12월께 최종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를 우수 직원 선발, 구청장 표창 및 은누리 상 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현숙 동구 민원봉사과 마일리지 담당은 “포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이후 20명 처벌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광주교육청에서는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청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됐으며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

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A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다. B고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러 갔다가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가 감봉 3개월 조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C고교와 D고교 교사가 각각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해질 18:10 달뜨기 20:28 달질 08:51

아침 날씨 짙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1/15 | 보성 | 구름많음 | -5/12 |
| 목포 | 구름많음 | 0/12 | 순천 | 구름많음 | 0/14 |
| 여수 | 구름많음 | 4/13 | 영광 | 구름많음 | -2/14 |
| 나주 | 구름많음 | -4/14 | 진도 | 기름흐리고비 | -1/12 |
| 완도 | 기름흐리고비 | 2/13 | 전주 | 구름많음 | -1/15 |
| 구례 | 구름많음 | -4/14 | 군산 | 구름많음 | -3/13 |
| 강진 | 구름많음 | -3/13 | 남원 | 구름많음 | -4/14 |
| 해남 | 기름흐리고비 | -5/13 | 흑산도 | 기름흐리고비 | 6/12 |
| 장성 | 구름많음 | -3/14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남부 | 남동~남 | 0.5 | 남동~남 | 0.5~1.0 |
| 면바다(북) | 남동~남 | 0.5~1.5 | 남동~남 | 1.0~2.0 |
| 면바다(남) | 남동~남 | 0.5~1.5 | 남동~남 | 1.0~2.0 |
| 남해 서부 | 동~남동 | 0.5 | 남동~남 | 0.5~1.0 |
| 면바다(서) | 북~북동 | 1.0~1.5 | 남동~남 | 1.0~2.0 |
| 면바다(동) | 동~남동 | 0.5~1.5 | 남동~남 | 0.5~1.5 |

◇ 생활지수

- ☹️ 감기: 매우 높음
- ☹️ 뇌졸중: 높음
- ☹️ 미세먼지: 나쁨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8:46 | 03:26 |
| 여수 | 21:17 | 16:07 |
| | 04:20 | 10:50 |
| | 16:49 | 23:02 |

◇ 주간 날씨

| 12(수) | 13(목) | 14(금) | 15(토) | 16(일) | 17(월) | 18(화) |
|-------|-------|-------|-------|-------|-------|-------|
| ☁️ | ☁️ | ☁️ | ☁️ | ☁️ | ☁️ | ☁️ |
| 8/13 | 8/14 | 8/12 | 5/15 | 4/5 | 0/6 | -2/5 |

광주·전남 내일부터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

이번 주 광주·전남은 기다리던 눈 대신 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3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비가 내린 뒤,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다시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진도·흑산도·해남·완도 등 남서해안 지역에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비오는 지역의 경우 가시거리 짧고 도로의 미끄러움이 우려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전망된다.

오는 15일까지 광주·전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 8~10도)보다 1~6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16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며 “11일 광주·전남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서구 긴급복지지원제도...실직·폐업 등 지원

광주시 서구는 9일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에 닥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에 처한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원

이하,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 5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구청 복지급여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